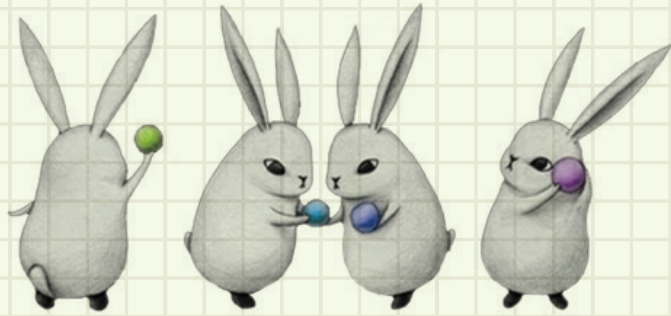


구름토끼



글 · 그림 김소선 / 책고래

구름 위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요? 바닷물을 끓여 구름을 만든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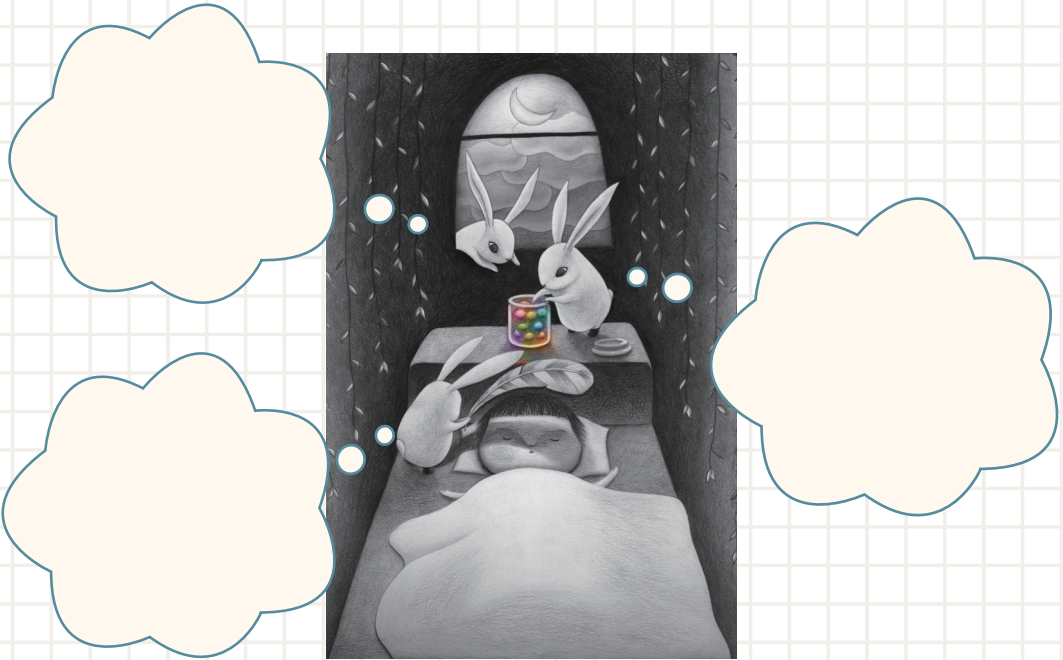
‘구름토끼’는 구름 위에 살고 있는 토끼예요. 구름토끼가 커다란 솥에 바닷물을 끓이면 구름이 몽글 몽글 나오지요. 맛아요. 구름을 만드는 토끼랍니다. 가끔 구름 밖으로 귀가 삐죽 나오기도 해서 사람들 눈에 띄기도 해요. 어느 날, 구름 위로 달콤한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가만 보니 한 아이가 의자에 앉아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구름토끼들은 긴 귀를 펴덕이며 땅으로 내려왔어요. 몰래 아이를 따라갔지요. 아이가 뛰면 같이 뛰고, 돌아보면 후다닥 숨으면서요. 그리고 아이가 잠든 사이 사탕을 가져갑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일곱 색깔 사탕을 들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씩 기계에 끼우고 스위치를 올리자 사탕 색깔 빛이 하늘에 좌르르 펼쳐졌답니다.

독후활동 시작하기

Q ‘아이’의 상황에 따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① 혼자서 사탕을 먹고 있어요.	②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③ 잠을 자고 있어요.	④ 무지개를 보며 웃고 있어요.

Q 그림을 보고 구름토끼의 마음을 상상하여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구름 토끼]에 등장하는 ‘아이’처럼 혼자 있었던 적이 있나요? 놀이터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거나 집에 혼자 있던 경험이 있나요? 자기의 경험에 빗대어 ‘아이’에게 위로가 되는 편지를 써 보세요.



Q 하늘을 올려다보면 다양한 모양의 구름을 볼 수 있어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같거나
몽실몽실 아기양 같은 구름을 본 적 있나요? [구름토끼] 속 토끼처럼 나만의 구름을
만들어 주세요.

